



##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길림 전면 진흥의 새로운 돌파를 추진해야

— 길림성당위 서기 황강 인터뷰

민영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생력군이다. 2월 17일, 습근평 총서기는 민영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새시대, 새 로 정에서 길림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어떻게 관철, 시달하여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으로 전면 진흥을 추진할 것인가? 기자는 길림성당위 서기 황강을 인터뷰했다.

###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 깊이있게 터득

기자: 음력설이 지나자마자 당중앙은 민영기업간담회를 소집하여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를 방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2월 8일 특별히 길림을 고찰하여 성당위와 성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길림성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는가?

황강: 습근평 총서기가 6년 만에 재차 민영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한 것은 당중앙이 '두가지 흔들림없이'(两个毫不动摇)를 고수할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민영경제 발전이 다시 한번 희망찬 봄날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길림의 봄은 류달리 일찍 찾아왔다. 2월 8일 습근평 총서기는 친히 길림을 찾아 성당위와 성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중요 지시를 내렸으며 몸소 길림 인민을 위해 청사진을 그려주고 진맥하여 방향을 제시하며 키를 잡아 인도했는데 이는 길림 전면 진흥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유와 전략적 고려를 충분히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길림 인민에 대한 친절한 배려와 깊은 정을 표명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든,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든 모두 정책 규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해주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동북 전면 진흥과 길림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지시 정신과 결합하여 거듭 학습하고 맞추어보고 시 달해야 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일체적으로 학습, 터득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5년 길림에서 부분적 성, 자치구 당위 주요 책임자 동지 간담회를 소집할 때 "민영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동북 3성 시찰 시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은 줄곧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해 왔으며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일련의 민영경제 발전 지원 개혁 조치를 내놓았으니 민영기업들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2020년 길림 시찰 시에는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기업가정신을 발양하며 여러가지 유형의 시장주체 활력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그는 다시금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장려·인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혜택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하여 여러가지 소유제 기업이 공동 발전하는 좋은 국면을 형성하라고 요구했다. 동북 및 길림의 민영경제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배려와 중시는 한결같이 이어져왔으며 일련의 중요 지시들은 역사적 론리가 일맥상통하고 리론적 론리가 융합관통되었으며 실천적 론리가 고리마다 맞물려왔다. 이는 반드시 길림 민영경제로 하여금 생기를 띠게 할 것이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도록 이끌 것이다.

달해야 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일체적으로 학습, 터득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5년 길림에서 부분적 성, 자치구 당위 주요 책임자 동지 간담회를 소집할 때 "민영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동북 3성 시찰 시 습근평 총서기는 당중앙은 줄곧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해 왔으며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일련의 민영경제 발전 지원 개혁 조치를 내놓았으니 민영기업들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2020년 길림 시찰 시에는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기업가정신을 발양하며 여러가지 유형의 시장주체 활력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그는 다시금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장려·인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혜택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하여 여러가지 소유제 기업이 공동 발전하는 좋은 국면을 형성하라고 요구했다. 동북 및 길림의 민영경제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배려와 중시는 한결같이 이어져왔으며 일련의 중요 지시들은 역사적 론리가 일맥상통하고 리론적 론리가 융합관통되었으며 실천적 론리가 고리마다 맞물려왔다. 이는 반드시 길림 민영경제로 하여금 생기를 띠게 할 것이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도록 이끌 것이다.

### 길림의 특색 우세에 발붙여 민영경제 발전

기자: 현재, 우리 나라 민영경제는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비중도 매우 크다. 각지에서는 모두 민영경제를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의 중요 조치로 삼고 있다. 길림성에는 어떤 특색적 우세가 있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민영경제 발전 성과로 전환시키고 있는가?

황강: 길림의 민영경제 발전은 백산송수의 풍부한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조금도 어김없이 관철, 시달하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

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풍부한 자원에 힘입어 혁신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여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산업기반의 우세를 발휘해 산업사슬의 연장과 강화와 보완에 집중하며 자동차, 의약, 방직 등 분야에서 민영기업들은 집적적 효과를 이루었다. 둘째, 레미엔 전 성적으로 자동차 부품 민영기업이 330여개가 넘으며 완성차 현지 조립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사슬과 산업사슬의 협동 효과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산업 전체 실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전 성 의약산업에서 민영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많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혁신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통화의 한 민영기업은 세계 최초로 '제조업 인자 알부민'(重组人白蛋白)을 개발했다. 료원은 '중국 양방산업 명도시'로 불리는데 면양 말 년간 생산량이 35억벌레에 달하며 전국 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에 팔리고 있다.

셋째, 과학·교육·인문 우세를 발휘하여 교육·과학기술 인재산업 발전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급과 성급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이 1,400여개를 넘었다. 길림성 민영기업들은 산업의 취약 부분과 핵심기술에 집중해 혁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성과와 발전 결과를 이루었다. 화위 신행 휴대 폰에 사용된 카메라 기술은 장춘리공대학의 몇몇 교수들이 창설한 기업의 제품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민간용 스펙트럼 칩(光谱芯片) 연구 개발 기업이다.

넷째, 농업 자원 우세를 발휘하여 민영기업들이 '량두식미'(粮头食尾), '축두육미'(畜头肉尾), '농두공미'(农头工尾)를 충분히 활용하고 살리도록 유도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농업·친환경농업·품질농업·브랜드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길림 입쌀, 선식 옥수수, 잡곡, 광천수 등 일련의 '길자호' 브랜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시장을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평판도 아주 좋다. '백초의 왕' 미명을 가진 장백산인삼은 지난해 산

업 규모가 800억원을 돌파했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황금간판'을 더욱 빛내고 있다. 백성시의 유제품 기업들은 전반 산업사슬 생산모식을 구축해 수입 분유가 중국 시장을 독점하던 상황을 역전시켰다.

넷째, 방설경제 우세를 발휘하여 방설스포츠·방설문화·방설장비·방설관광을 크게 발전시키며 민영기업들에 '백설로 백을 버는'(白雪换白银)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전 성 68개 스키장은 대부분 민영이며 전국 10대 스키장중 길림성이 3곳을 차지하고 있다. 스키장 슬로프 총길이는 전국 최상위권이며 케블카수도 전국 1위이다. 장춘바사국제스키축제와 국제스키러닝의 일련의 최정상급 대회들이 이곳에서 열린다. 고운 눈과 잔잔한 바람, 따스한 태양과 상고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송원시 차간호의 겨울철물고기잡이는 명성이 자자하다. 길림의 방설관광은 다시 한번 열기를 더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방설 시즌에 전 성에서는 연인수로 포함 1.4억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접대, 총 2,290억원의 관광수입을 창출하여 소비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행차원'이 '열산업'으로 변모했다. 민영경제는 '방설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길림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힘이다.

다섯째, 변경·연해 우세를 발휘하여 민영기업들이 국제경제무역 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길림의 개방의 문을 더욱 넓히고 있다. 연변 훈춘통상구는 수출입 차량들로 분주한바 전국 인민의 식탁에 오르는 키크랩의 70%가 여기서 나온다. 전세계 70%의 잣은 매화구에서 생산된다. 얼마전 나는 한 잣가공기업을 조사연구했는데 40여년전 수공으로 잣알을 한알 한알 뜯던 데로부터 지금은 기계화를 실현하여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99%를 수출하고 있다. 작은 잣알로 큰 산업을 일으키고 전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융합도전하고 간고하게 창업하는 길림 민영기업들의 생동한 축소판이다.

▶ 2면으로

## 재정부: 재정 교육 투입 우선 보장, 교육강국 건설 지지

3월 24일, 재정부는 2024년 중국 재정정책 실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4년에 고품질 교육 체계 구축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연간 일반공공예산 교육 지출이 4조 2,076억원으로 2%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25년에는 재정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중점적으로 잘 수행해야 할 업무에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의 대대적 실시를 포함시키고 재정교육 투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교육강국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육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한다. 교육을 국가 전략적 투자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견지한다. 2024년 전국 일반공공예산은 교육 지출 4조 3,076억원을 배정했다. 그중 중앙 본급 교육 지출이 1,6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이끌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경비 보장 기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한다. 2024년 봄학기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숙학생 생활 지원 국가 기초기준을 인상했는데 소학교는 년평균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중학

교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비기숙학생 생활 지원 기준은 기숙사 학생 생활 지원 국가 기초기준의 50%로 계속 산정되어 약 2,000만명 학생이 혜택을 보았다.

셋째, 지역 기초교육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한다. 지역이 학령인구 변화 상황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편적 학령전교육자원을 늘리고 의무교육의 취약한 부분 개선과 능력 향상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지역 일반고종의 기본운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기초교육자원 공급을 다그쳐 확대한다.

넷째, 직업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진한다. 전문 분야에 기반한 직업교육 차별화 학생 1인당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첫번째 중국특색 고수준 고등직업학교 및 전문건설학교 성과 평가 작업을 완성한다. 지방의 직업학교 학생의 인당 지원금 수준을 높이고 교육 조건을 개선하며 산업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직업교육의 '이중형' 교사 양성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고등교육의 빠른 발전을 지원한다. 중국특색의 세계 일류 대학과 우수학교 건설을 다그치고 첫번째 '쌍일류' 건설 및 개선 학교 재평가를 완성한다. /인민넷

## 길림성 여름가을 항공 시즌 항공편 대폭 추가

남방항공은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5년 여름가을 항공 시즌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이번 항공 시즌에 여러갈래 항공편을 새로 추가하고 여러갈래 항로의 운항 빈도를 증가한다고 남방항공측이 전했다.

### 국제항로

장춘-일본 도쿄 나리타는 매일 1회씩 정기 운항하는데 신규 CZ5071/2(월/수/금)는 기존 CZ623/4(화/목/토/일)와 상호 보완을 실현하며 에어버스 A320을 운항한다.

장춘-한국 서울, 연길-한국 서울 직항편이 매일 1편씩 운항된다. 연길-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는 지속적으로 운항함으로써 로씨야 극동지역과의 연결을 심화한다. /유경봉기자

### 국내항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장춘-상해 포동 CZ8761/2 왕복 항공편을 추가한다. 추가후 매일 운항 편수는 6편으로 늘어난다. 장춘-광주, 장춘-심수는 모두 매일 4편씩 운항한다. 장춘-북경 대흥은 매일 6편의 날

은 빈도로 왕복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 국제항로

장춘-일본 도쿄 나리타는 매일 1회씩 정기 운항하는데 신규 CZ5071/2(월/수/금)는 기존 CZ623/4(화/목/토/일)와 상호 보완을 실현하며 에어버스 A320을 운항한다.

장춘-한국 서울, 연길-한국 서울 직항편이 매일 1편씩 운항된다. 연길-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는 지속적으로 운항함으로써 로씨야 극동지역과의 연결을 심화한다. /유경봉기자

## 연길 부르하통하에 철새 날아와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강이 녹으면서 철새무리가 날아와 도시의 또 하나의 풍경선을 이루고 있다.

3월 26일, 연길 부르하통하에서 왜가리, 들오리, 서랑조 등 조류들이 강바닥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는데 그들은 때로는 한들한들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 먹이를 찾기도 했다. 연길시립업국 사업일군은 부르하

통하의 생태환경이 량호하고 수체가 맑아 철새들이 풍부한 먹이와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년간 연길시의 생태환경보호 사업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점차 더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조류가 늘어나면서 시민들도 강변을 찾아 철새 구경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으면서 기쁨을 남긴다. /연일

### · 가요 ·

## 장백 아가씨



노래: 안영란 제작: 리홍국  
기획: 홍길남 촬영: 리홍국

## 새들의 노래로 더욱 령롱한 길림의 봄



▲ 흰목두루미가 훈춘 상공에서 날개를 펴고 높이 날고 있다.

지속적으로 생태의 바탕색을 잘 닦아온 덕에 길림의 습지, 강, 호수, 산 림에는 철새들이 몰려와 춤을 추고 여유롭게 서성거리며 먹이를 찾고 마음껏 노래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새들의 울음소리는 따스한 해살처럼 길림 대지를 부드럽게 깨우며 땅속 생명의 활력과 희망을 가득 채우고 있다. 2월 8일, 습근평 총서기는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발전의 리각점을 고품질 발전에 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생태환경보호와 친환경적 발전을 총괄하며 방설, 자연관광, 민

족풍정 등 특색 자원을 리용해 관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당위 서기 황강은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생태문명사상과 길림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결렬히 관철하고 룽수정산은 금산은산이고 빙천설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고품질 생태환경을 확실히 수호하고 길림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다년간 우리 성은 생태환경보호 강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생태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새들이 더욱 안전하고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했다.

두루미의 우아한 자세에서 백조의 순결하고 고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동방황새의 웅장한 비상에서 기러기무리의 질서 있는 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류의 방문은 하나하나의 봄날의 사신과 같고 봄날의 서곡은 바람 타고 조용히 길림 대지에 전해지고 있다...

이 순간, '길환춘귀(吉唤春归)'는 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현재처럼 개선된 우리 성의 생태환경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길림일보